

法, 文學 그리고 外試

이 충 면

『학력사항』

- 대구 영남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석사
-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석사

『경력사항』

- 현) 주중국대사관 정무공사
-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 단장
-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외교통상부 북미1과장
- 외교통상부 평화체제과장
-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 1992년도 제26회 외무고시 합격

I. 시작하면서

고시준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기를 쓰는 순간을 그려볼 것이다. 나 자신도 그랬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직접 펜을 들고보니, 합격기를 쓴다는 일이 조금은 우습게 느껴진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저마다의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남의 합격기를 읽는다는 것이 고시공부하는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을 정리하는 작업이라서 자연히 어느 정도의 美化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단지 운 때문에 시험에 떨어져 지금 이 순간에도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서투른 충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년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나도 시험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합격기를 읽곤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근본적으로 나의 공부방법이나 정신상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다. 혹은 고시원에서

혹은 골방에서 청운의 푸른 꿈을 온몸으로 태우고 있는 수많은 고시준비생들-특히 外試 준비생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티끌만한 도움이나 될까 하여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기분으로 읽어 주시길 바란다.

II. 考試 그 중에서도 外試를 선택하기까지

시험을 준비할 때나 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사람들에게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법대출신이면서 왜 外試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다. 법대출신이 아니면서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에, 그 어려운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으면서 엉뚱하게도 어떻게 해서 外試를 준비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 그런 질문들의 요지다. 사실 나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고 목표였다. 물론 집안의 바람도 있었지만, 나 자신도 그러한 직업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꼈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권위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설익은 나에게 있어 상당한 매력이었었고, 또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은 비록 외면적으로나마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법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뚜렷한 희망이나 주관 없이 법대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법대를 다니면서 친구나 선배·후배들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

다. 분명히 나도 나 자신의 확신에 따라 법대를 선택했으며, 입학원서를 쓸 당시의 심적 상태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한다. 법대 4년을 다니면서 법대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법대에 들어간 것에 대해 나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대의 그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다. 마음맞는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가면서 고시원에 틀어박혀 法書를 보던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다. 그때 스터디를 같이 했던 친구들 중 4명은 이미 오래전에 사법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1명은 우리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가끔 그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때만큼 찬란하고 온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찬 순간도 없었던 것 같다. 한 마디로 행복했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확신은 4학년이 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판정을 견학하고 선배나 친구들의 경험담을 자주 듣게 되면서,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직업이 내 적성에 딱 들어맞는 것인가? 그동안 나는 검사·판사라는 직업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 때문에, 그 길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등등의 질문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열두 번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젊은이의 마음이라지만, 이런 심적 변화는 그 당시의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결국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시험에 합격하라는 말과 함께, 나는 내 인생의 여

러 가능성들 중에서 사법시험이라는 항목을 지워버리고 말았다. 부모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만약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법시험에 대한 집안의 열망은 대단했다.

나는 결정이 빠르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다. 법학은 좋아하지만 판사·검사는 싫은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학문의 길이었다. 내가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이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가슴을 저미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내가 싫은데 어찌할 도리가 있으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가야 하는데, 그 당시의 내 소견으로는 법대대학원에 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느껴져 군대에 갔다온후 막바로 독일유학을 가기로 내심 결정하고 있었다. 독일유학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일어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위소집복무를 받는 동안 그 정도의 독일어실력을 보충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던 차에 우리학교에 편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인 상대뫼의 권유도 있고, 어차피 독일어 유학하면 주전공 이외의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결국 나는 독문과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내가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만큼이나 내 인생에 있어 중대한 사실이었다. 독문과에 편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가 확정적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멀리 보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군대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나는 법대를 졸업했고 또 독문과 편입시험에 합격했다. 같은 학교내에서 편입하는 것은 군복무 연기사유가 안되는지라, 나는 독문학공부를 하면서 군대에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갔다.

그러나 막상 방위소집 통지서를 받고 보니 그 동안의 마음의 준비는 무너지고 어떻게 해서든 방위소집을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독일어와 독문학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군대를 가야 군대에 가서도 독일유학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병무청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보고 해서 내가 아직 나이가 차지않아 편입으로 연기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하지만 소집예정일 이틀 전 그것도 민원서류 접수마감시간 5분전에 연기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결국 나는 소집일 날 신병훈련소행 시외버스를 탈 수 밖에 없었다. 우울했다는 말로밖에는 그때의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 신병훈련소에 도착해 한참을 구르고 내무반의 자리까지 배치 받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온 담당자가 나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니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그건 행운이었다. 그때 날 도와 준 상대뫼은 평생의 가장 큰 은인일지도 모르겠다.

그 후 독문학을 계속해 나가면서 나는 도대체 학문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란 것을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엄청난 끈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재정적 문제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말이다. 부모님들의 사법시험에 대한 종용과

함께, 학문에의 의지가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약해지면서, 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外試를 점점 내 마음속에 굳혀가게 되었다. 결국 빠른 결정을 내리는 내 습관에 따라 나는 외무고시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 동안 쓰라렸던 내 마음은 안정을 찾았다.

지금에 와서 나는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결과가 좋아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만 후회 없이 선택하고 후회없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 낸 성과에 대해 후회없이 만족했다면 그것 자체가 인생의 많은 아름다운 일들 중의 하나가 아닐런지!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스스로 자신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히 드리고 싶은 충고 하나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또한 뼈저리게 생각해 보고 일단 그것이 정해지면 太山과 같은 장중함으로 밀고 나가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어 낸 어떤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만족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보지만, 실지로 성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성공과 삶의 열쇠는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들을 안내하는 데에 있다.” (어느 작가의 말 중에서)

Ⅲ. 당부의 말

우선 실제적인 이야기로 선택과목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어차피 제2외국어는 자신의 관심분야나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논문과목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물론 어떤 특정과목이 항상 점수

가 잘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하는 식의 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있게 마련이다.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는 몰라도, 불합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택과목 점수가 좋지 않다.

각 과목의 난이도나 문제의 성격이 다르므로 사전에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논문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와 사정을 참작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충고를 해본다.

외무고시 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을 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거치면서 나는 나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연수원생활도 어느 정도 재미있고 또 동기들도 개성이 강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사법시험 말고 외무고시를 택한 것에 대해 아직 별로 후회감을 느끼지 않는다.

법대 4년, 독문학과 2년이라는 6년간의 생활을 거쳐 오면서도 나는 항상, 젊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느꼈었다.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해야만 하는 그 자유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구속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 속에서 나는 나 나름의 한 가지 기술을 개발해 냈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결정을 빠르게 하고 행동에 옮기며, 내 적성과 능력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방법이었다. 물론 신중하지 못한 면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 보건대 그러한 방법은 젊음의 무게를 견디어 나가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 같다.

외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

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외시를 선택했으면 모든 열정과 젊음을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다. 다름 考試도 마찬가지이지만, 외시 역시 2~3년 정도의 시간을 바칠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영성한 시험준비로 결국 불합격하고 만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시간의 낭비이자 인생의 손실이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과거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고 동시에 자기만족도 찾을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곧 자기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멋진 직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다가 너무도 아깝게 시험에 떨어진 진우와 MY氏, MS氏에게 안부를 전하며, MY氏가 내년에 꼭 합격하길 두손 모아 기원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일일이 이름을 못 적는 법대친구들에게 행운을 빌며, 원익이를 포함한 연수원 친구들에게 먼저 합격기를 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한다.

땀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